

# 전북투어패스 판매 한달만에 3만매 돌파

### 12일 기준 3만5212매 기록 '가자고' 2만여 매 선구입 20~26일 SNS 특별이벤트

전북도가 민선 6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발매 한 달만에 3만매 판매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지난 2월 15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북투어패스 발매 선포식을 갖고 본격 출시에 들어간 이후, 12일 기준으로 누적판매수 총 3만5,212매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처인 국내여행 전문커머스 '가자고'는 전북투어패스의 성공가능성을 예견하고 2만1,000여매의 패스를 선구입해 자체 마케팅을 통해 적극 판매하고 있다.

판매채널별로는 가자고 선판매 2만

1,004매,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 779매, 민간위탁사(레저큐) 및 시군 판매수 1만3,429매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카드형이 1만4,145매, 모바일형이 2만1,067매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투어패스를 알리기 위해 패스 출시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네이버, 페이스북, SNS, 잡지광고, 여행전문채널 팟캐스트, 전광판, TV, 라디오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현수막 게시, 대규모 행사장 방문 홍보, 지방행정연수원 및 금융기관 등 도내 주요 기관 방문 홍보, 주말 전단지 홍보 등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전북투어패스 보물찾기' 행사를 열어 정해진 시간 안에 보물을 찾아오는 관광객 100명에게 경품으로 전북투어패스를 2매씩 증정해 많은 관광객에게 전북투어패스를 알리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연계해 20~26일에는 페이스북에 패스 가맹점 3개소 이상 방문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모바일 패스를 증정하는 SNS 특별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파워블로거 및 도의 대학교 동아리 대상 팸투어 및 SNS 온라인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전북방문의 해에 맞춰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대회, FIFA U-20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와 시군대표축제, 체육행사 등과 연계해 전북투어패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신개념 관광자유이용권인 전북투어패스의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행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인 맛집, 숙박, 체험 공연시설 등 특별할인가맹점을 도와 시군의 협력에 대폭 발돋웠으며, 특별할인가맹점 이용시 사용하는 지류형 쿠폰과 함께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편리한 모바일 쿠폰도 개발 중에 있다.

투어패스 온라인 판매처인 여행전문 커머스 '가자고'에서도 자체 프로모션으로 전북투어패스를 전주 한복체험 등과 묶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차 다른 시군의 인기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와 시군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선한 상품 기획이 고객에게 어필된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민 인권증진 및 보호 구심점 기대

### 전라북도 인권센터' 개소... 본격 활동

전북도는 16일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신설된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김중철 도의회 행정위원회장, 신양균 전북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인권관련 기관·단체 주요인사와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 제막식 등을 가지며 인권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도는 전국 시도단위 중 세 번째로 인권상담기구를 만들고, 특히 장애인인권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는데, 이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 설치 원년을 기해 전북도 인권정책 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구현을 위해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인권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시군의 제도적 기반 구축,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토론 협력을 위한 인권협의체 구성,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은 물론 도 실국별로 사회적약자 대상 인권시책 개발 등 인권기치를 도정에 접목해 본격적으로 실행화 할 방침이다.

한편 도청 공연장 1층에 자리한 인권센터는 인권상담실을 구비해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적극 처리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 도-한국장학재단, 상호협력 협약

전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6일 '전북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차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안양욱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도와 재단은 전북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국가 교육근로장학 등 취업연계 사업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6일 '전북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차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송하진 지사와 안양욱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 '전북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접수 9월 4-5일

전북도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품격 높은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판, 삶과 희망의 표현'이란 주제로 '전북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은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광고물행정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 및 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조형미가 우수한 간판의 제작·설치를 유도해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고물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다.

지난해에는, 기존간판, 창작간판, 창작모형, 아름다운 간판그리기 총 4개

분야에서 공모전에 547점이나 출품해 45점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에는 총 4개 분야에 56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작품접수는 오는 9월 4-5일 이틀간 접수할 예정이며,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한국유통광고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 광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주택건축과(063-280-43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 전북 뭍 찾기' 대안 탐색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뭍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에 따르면 16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44개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사드 보복 본격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탄핵 이후 대선정국 등 불

확실한 정치·경제적 현실에 현명하게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국내외적 경기침체, 소비시장 위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 위를 비롯한 지역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 운영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 정경화 전주·완주지사장은 '국민연금공단 현황 및 국민연금 기금 현황'을 소개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그 외에도 군산해양수산청의 '군산·어청도항로 여객선 직항 추진', '군산항 하역장비 이동로 개설 추진을 통한 기업에도 해소', 전북지방보달청의 '벤처나라 활용', 전주고용노동지청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제도안

## 도내 44개 경제관련 기관장 민생경제원탁회의 개최

내', 전주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사업 확대', 한국산업은행의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들의 시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도내 경제관련 기관들이 소통·상생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력을 키우고, 전북의 방식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전북 뭍 찾기'를 주제로 협업토론회도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 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공모 전국 1위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에 전국 1위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한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와 연계·협업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수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선도 연장과 저온유통환경 제어시스템 상용화 사업'이라는 과제로 전국 1위로 선정돼 인센티브

를 포함 총 국비 10억2,4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과제는 전북 지역 내 수삼 농가 및 가공업체와 연계하고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신선도 연장과 저온유통환경 제어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삼을 수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와 진안군이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총괄 수행하며,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기술이전, ㈜에코파나스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원광대와 진안홍삼연구소는 관련기업의 수출 사업화 지원을,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문 인력양성을 담당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